말 씀
Preach

도시에 살다가 귀신에 지배를 당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**두 사람을 소개한 사건**이 있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똑같이 12라는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. **한 사람은 12살 어린아이였고, 다른 한 여인은 12년 동안 부인병**을 지닌 채로 살았던 여인입니다.

이 세 가지 상황들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들입니다. 당시의 정황으로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나 발달 된 치유의 방법이 없던 때에,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? 두려움이요,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.

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작년 11월부터 중국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, 이 바이러스는 퍼져 나갔으며 지금까지 면역을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안 되어서, 완벽한 치료의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전 세계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.

오늘 성경의 본문도 당대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귀신들린 식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여 선혈이 낭자한 모양으로 뛰어다닌 모양을 보고 그 어느 형제인들 편하겠습니까? 더욱이 다 자라지 못한 초등학교 쯤 되는 자녀가 이유 없는 질병으로, 아니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치료 한 번 바르게 받아보지 못하고, 서서히 생명불이 꺼져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까요?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남모르게 고생을 한 여인의 상한 자존심은, 그 모양이 어떠하였을까요? **[아무에게도]**라는 단어는 **'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'**이라는 의미인데,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, 더 나아가서는 한 인격적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

오늘 **이러한 현실 앞에서 성경의 해결점**은 무엇이었는가? 인간적인 노력이나,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에,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**주님이 계셨다**는 사실입니다. 귀신이 있는 그 광야에 주님이 계셨고, 12살의 딸이 죽어가는 그 가슴앓이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고, 인간적인 수모를 겪고 있는 여인의 곁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.

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달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**정작 신앙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서 부르짖었는가** 생각해보아야합니다. **하나님의 섭리**를 인정하며, **하나님의 임재**를 얼마나 간구하였는가? 하나님의 앞에서의 간구함은 그리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, **영적인 생활의 회복에 그리도 몸부림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**는 우리의 현실입니다.

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현재의 **문제를 직시하고 성경적인 방법**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을 만나러 가야합니다. 지체하지 말고 오늘의 광야는 인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합니다. 주님은 그 절망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.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열정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.

'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'하시며,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**'일어나라'**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절박한 현실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듣고,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.

❑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?

1.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.

---

2.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나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.

❑ 특별히 속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다함께 중보기도 합니다.
❑ 담임목사님의 목회위에 성령충만, 능력충만, 말씀충만을 위해 중보 합니다.

❑ 헌금찬송 : 309장
❑ 마침기도 : 속장 혹은 맡은 이

❑ 금주 속회 실천사항 나누기
– 2020년 성경1독을 위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.